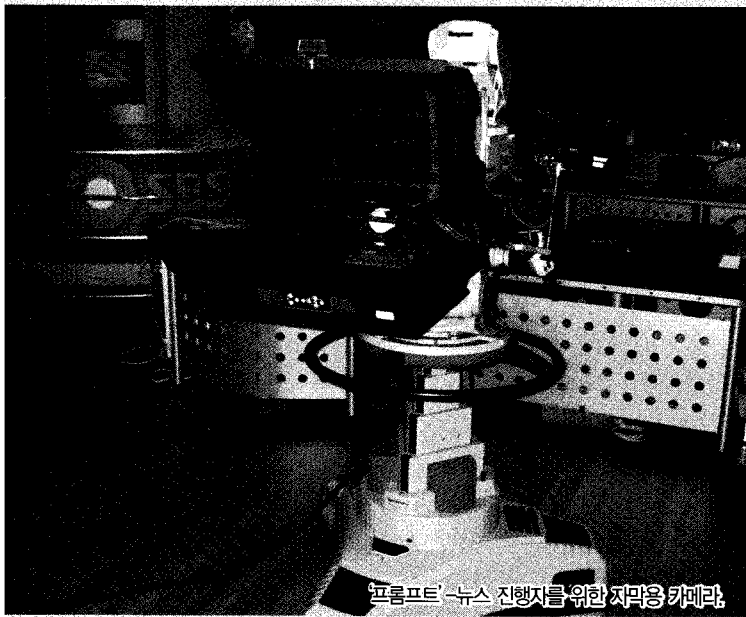


다양한 방송효과와 함께

방송뉴스 재미있게 보는 법

권태훈 |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방송 뉴스에는 일반 시청자들이 모르는 기술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다양한 방송효과를 통해 움직임이 분주한 제작 현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방송을 더욱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롬프트’ 뉴스 진행자를 위한 자막용 카메라.

방송, 속임수 같은 기술

방송뉴스에는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속임수 같은 기술이 있다. 물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방송 효과를 위한 것이지만 어찌됐건 시청자가 보기엔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만한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뉴스진행자 앞에 놓여지는 ‘프롬프트’ 카메라가 그렇다. 이른바 자막용 카메라라고 하는데, 앵커의 화면을 잡는 동시에 앵커가 읽어야 할 기사내용을 화면에 띄워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앵커는 기사내용을 모두 외워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띄워진 글자를 보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앵커들이 들고 들어가는 원고는 일종의 보조용이다. 프롬프터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가끔씩 일부 앵커들 가운데는 능청맞게 고개를 숙여 원고를 보고 읽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럴 때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신뢰감을 가진다고 한다. “그래, 저 사람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겠어...” 라고 말이다.

기상 캐스터의 비밀

두 번째는 ‘크로마키’라고 하는 파란색 판이다. 방송용 카메라는 어느 특정한 색깔은 읽

지 못하도록 조작할 수가 있다. 방송사들은 주로 파란색을 지정하는데, 카메라가 그 파란색 판을 비추면 화면엔 아무 것도 안 나타나게 되고, 대신 다양한 배경화면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된다

기상 캐스터들이 주로 이 작업을 많이 한다. 구름의 위치가 어떻고, 어느 지방 날씨가 어떻고 하면서 손짓을 해 대지만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파란색판 앞이다. 대신 앞과 양옆에 TV가 한대씩 있어서, 구름사진 등 배경화면이 삽입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때때로 초보 기상캐스터 가운데 영남을 가리켜야 하는데 호남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등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스템에 아직 익숙지 않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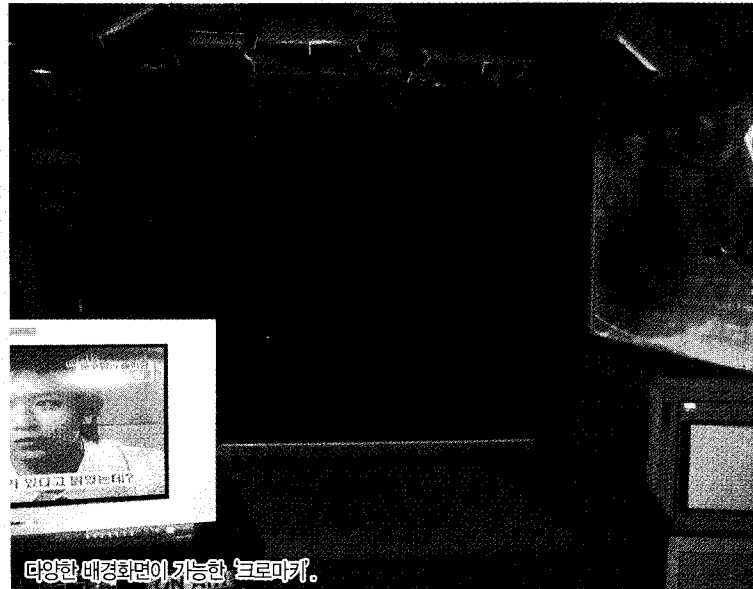
사람에게 파란색을 옷을 입히면 투명인간이 되고, 같은 사람이 한 화면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현장성을 위한 '스탠딩'

세 번째는 기자들의 '스탠딩'이다. 쉽게 말해 리포트 속에 기자가 잠시 얼굴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데, 기자들이 스탠딩을 하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다'라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정치나 경제, 해외기사처럼 딱딱히 기사 내용을 덮을 만한 그림이 충분치 않을 때이고, 세 번째는 기사와 기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쿠션용이다

현장성이 중요한 경찰기자들은 기사작성 전이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스탠딩을 해 오도록



교육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멘트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이 용의자가 사용한 칼이다'라든가, '불이 처음 난 곳이 바로 여기'라든가 하는 내용이다. 물론 그 중에는 기사흐름에 맞지 않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데스크한테 무지하게 혼이 난다.

그림이 부족해 스탠딩을 하는 경우는 관련 그림을 그냥 의미 없이 붙이는 것보다 기자가 직접 얼굴을 내밀어 시간을 메워주면 편집자에게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화면을 잘못 붙여 소송이 증가하는 요즘 기자의 스탠딩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국제부 외신담당 기자들은 현장도 없고, 화면도 외신뿐이기 때문에 얼굴 내밀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데 간혹 어떤 기자들은 기상캐스터처럼 '크로마키' 판 앞에서 외신그림을 깔고 과감한 자기PR을 시도하기도 한다.